

새로운 전산 교육과정

김 수 홍

(상명대학교 교수)

어느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의 문턱에 들어섰다. 노랗게 물든 낙엽이 캠퍼스 곳곳에 수북히 쌓이면서 4학년 학생들이 추천장을 받고자 연구실로 찾아오는 발길이 잦아진다. 특히 금년에는 더 좁아진 취업문 때문인지 찾아온 학생들의 얼굴색이 어두운 느낌이다. 모두에게 당당히 자신의 설 곳과 원하는 곳에 지원하여 소신 있게 장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다.

과연 이들은 4년간 전산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익혔을까? 4년이라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학생들은 당연히 이 기간동안 배우고 익힌 것으로 사회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 과연 그들이 현장감 있는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하기에는 왠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거의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이 대동소이하다. 대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공필수과목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퓨터 구조, 데이터 베이스, 운영체제,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공학 등 기본과목을, 전공선택과목으로 전산 분야에 적용되는 여러 과목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전공, 선택 등의 학점 취득의 목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즉 언어를 배우고 알고리즘 또 운영체제를 배우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기본기술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일면만을 보자면 학생들의 현장 활용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전산학과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프로그래머가 되는가 하는 점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0% 미만의 졸업생이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대부분은 응용(?)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생각해 본다. 일단은 모든 학생이 2학년까지는 기본적인 전산학과목들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방학기간 중에는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을 나가서 자기의 적성에 적합한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3학년이 되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 후, 그 분야별로 2년간 공부를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학생은 언어와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툴 등

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응용자에게는 보다 많은 소프트웨어를 접하게 하여 이용방법등 보다 많은 활용범위를 갖게 하자. 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전산분야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현재 개설된 교직과목처럼 정치 경제와 더불어 그들의 공무원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서 이에 준하는 실력과 소양을 쌓게 하자. 또는 전산학이라는 학문을 원하고 나아가 교육자로서의 길을 걷기 원하는 학생에게는 그에 합당한 교육 여건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런 특성화된 교육과 내용으로 학생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여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졸업 후 바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신을 키워 나간다면 보다 생동감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대학에서 4년간 교육받은 인력을 현장에서는 재교육을 시켜야만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 이 또한 낭비이며 국가 경쟁력에서 뒤지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현 시대에 맞는 사회가 원하는 전산관련 전문인력을 대학에서 배출하여야 한다면, 그런 요구를 누군가 대학에 요청해야 하고, 또 그러한 요구를 수렴하여 한 목소리로 대학에 요구하는 기구도 필요할 것이다. 학생과 대학 그리고 기업체로 대변되는 사회, 이 삼자가 조직적으로 변화에 대응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기 일방적으로만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불평하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 버리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요즘 대학에서는 국고 지원과, 전문화/특성화 대학, 종합평가, 학부제, 복수전공제, 교과과정개편 등이 연관되어 있어서, 자구책으로 스스로 대학의 제도 및 시설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하다. 차제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교과과정개편의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을 대학과 더불어 우리 정보처리전문가협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간다면 우리 “아이팩”의 설립취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진다. 창문너머로 훑날려 떨어지는 단풍잎과 더불어 우리의 뒤를 이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그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의 수업이 끝난 저녁 썰렁한 학교캠퍼스와 갈바몰라 헤매이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아쉬움을 접는다.